









#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 해준 최후 승리의 진군가

##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강원땅을 뒤흔들며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강국의 본업과 기상을 만반에 펼쳐가는 승리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자전치는 속에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원산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은 강원땅을 진감시킨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총진군포성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이 강원도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태고조진군의 진열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자 하는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준 최후승리의 진군가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국보급의 예술단체들을 맞이한 강원도는 끝없는 격정과 원로로 설비되었으며 불야경을 이룬 원산시의 밤은 사회주의혁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로 잠들 줄 없었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아낌없는 찬사와 열렬한 요청에 의하여 날과 날을 이어가며 대렬한속에 계속된 공연은 기대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관람자들의 심장을 안진히 뒤흔들며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애국의 넘과 피가 펴져 가는 참신하고 약동적인 공연을 보기 위해 원산시뿐 아니라 평강, 김화, 이천군 등 수백리 떨어진 군부에서까지 앞을 다투어 달려온 시민들로 하여 공연장소인 송도원 청년아외극장은 매일 초만원에 이르렀으며 관람열풍은 날이 갈수록 세차게 타올랐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원도를 살기 좋은 인민의 무풍도원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에 애국헌신의 땅을 바쳐가고있는 주요장장, 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대상진실에 통원된 전실자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기여한 녀맹원들을 비롯하여 강원도인민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공연의 첫막을 울린 때로부터 현열 혁명적이며 전후적인 공연활동으로 수명의 유권관현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강원도정신창조자들에게 절승의 신실과 혁명적관판을 인계해주고 대고조의 승진이 더욱 높게 하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경음악 《내 나라 제일이 좋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 《홍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가부 《모란꽃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마르츠 《정충시집》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라 공연전 기간 국장은 격정의 도가니로 끓어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혁명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만리마의 속도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처럼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역진 기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전하를 뒤흔드는 피성마냥 울려대기도 봄날의 대지처럼 부드러운 정서로 마음을 사로잡는 곡목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관중들은 경탄을 감지 못하였다.

우리 당 사상발전의 제1기수인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경음악과 노래현악 《당이어 그대 있기에》, 남성독창 《아비라 부릅니다》, 남성중창 《조국과 나》, 《인생의 영광》을 새롭게 형성하여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거창한 전년의 역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인하여 우리 당에 대한 전민군민의 열렬같은 신뢰성과 감사의 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만사람을 직공시킨 경음악 《단숨에》는 만사람들에게 만민년년홍시에 특기할 대경사, 대사변을 현이 이북하여 주제의 격장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가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새겨주었다.

황금해의 포구들에 펼쳐지는 《이제여경》을 그려주는 《바다 만물가》와 청춘대파원의 그윽한 파일항기를 풍겨주는 《별명야사파마다》의 노래는 극장을 흥겨운 흥판으로 불태우게 하였다.

참신하고 열정적인 노래현악과 세련된 예술적기향으로 환희로운 음악세계를 펼친 하나하나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희열과 혁명적관판을 더해 주었다.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야 별친 앞으로》,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의 곡목들을 훌륭히 형성하여 역사가 일찌기 잊지 못하는 기적의 시대를 열고 인

민의 만복을 꽃피워가는 위대한 당을 따라 별진의 한길로 역세게 전진하며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해갈 천만 군민의 역적분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실회시 《영광의 땅, 강원도!》는 강원땅에 떨쳐이 어머없는 백두산집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며 위대한 당의 현열한 병도마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승리만을 펼쳐갈 도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자력갱생의 영웅신화를 창조해가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불굴의 정신세계를 높은 사상에 승화시키고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형성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다.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도 기백있고 박력있는 무용종목들로 미세와 그 추종세력들의 진대비문의 반공화국제대살쟁들을 단호히 처갓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와, 대혁신을 일으키며 약동하는 새 생활을 창조해가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원성을 펼쳐보였다.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중창과 남성합창 《그이 애국열을 여려치에나 찾وسی어 원아들에게 감사용위정신, 감사관철의 정신을 배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병도를 총적으로 받들어 이 땅위에 위대한 수명년들의 애국년월, 강국년월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의 메아리로 울려져서 관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주제의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원화제일강국으로 우뚝 올려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드리는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 울리는 종곡 《강성은장군께 영광을》은 공연마감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세계를 향해 노도쳐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찬 기상과 인민의 지향을 사상에 준적으로 훌륭히 형성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약동하는 시대의

승진이 맥박치는 혁명적인 공연》, 《자력갱생의 만리마태고조진군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부여한 전후적인 공연》이라고 감탄을 감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은 강원땅을 진감시킨 위대한 로동당시대의 찬가, 혁명의 전군가들은 자력갱생의 영웅신화창조에 펼쳐나선 도인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열의를 백배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공연의 배 종목목들이 온몸에 새힘이 솟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

관람자를 누구나 이렇듯 훌륭한 공연무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결의를 안고 입마다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새차게 지어올리고있다.

우리는 국보급의 예술단체들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은 강원도인민당 제7차대회 제7차대회 제7차대회 제7차대회 제7차대회를 결사코 실현해나감으로써 강원도를 천국의 본보기도로 빛내어나가겠다.

원산시유원 원장 김경옥은 경음악과 노래현악 《당이어 그대 있기에》를 볼으며 애국열을 여려치에나 찾وسی어 원아들에게 감사용위정신, 감사관철의 정신을 배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병도를 총적으로 받들어 이 땅위에 위대한 수명년들의 애국년월, 강국년월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의 메아리로 울려져서 관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상성과 예술성, 감동력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훌륭한 공연을 통하여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강원도군민발전소 건설지휘부 참모장 김수철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공연을 보고나니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서 시대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더 큰 성과로 보답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닌 발전소건설자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이반으로 전후현장에 달려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완공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하루를 백날, 천날 맞잡아도 되고 토로했다.

원산군민발전소 지체인 추명경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보답의 발걸음을 더욱 역세게 해주는 공연이다. 선군혁명나팔수들의 총진군포성에 전력갱생의 울음으로 화답하며 매일 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강원도를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자력갱생도로 이룩한다는 데서 말거친 본분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원발프공장 지체인 현재성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 비약의 보금인가를 생 동안 최후로 보여준 훌륭한 공연이었다. 공연을 보면서 더 밝은 해일을 향하여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나날들을 감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우리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풍하고 잘사는 길이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믿음껏이던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우리가 살길, 길같은 오직 자력갱생의 길이라는 필리를 새겨주는 공연은 우리들의 심장을 또 한번 세차게 격동시켰다.

오늘의 앙양된 기세로 계속 내달려 나간 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한 로력적신물을 안고 멋있게 뛰어세웠다. 우리 공방로 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본원강철공장 기사장 최성호는 공연이 영광들의 최후제일 뛰어넘는 강원전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우리 공방로 동계급은 남마다 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꾸며 볼수없는 전후를 떨리고있다.

강철직장에서는 매일 새차지의 쇠물을 뿜고 압연직장의 로동계급은 한우일이 걸린다는 로보수를 단 이틀만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동해의 항구도시에 황홀한 공연 무대를 펼친 우리 당 사상문화발전의 제1기수들에게 보내는 우리 로동계급의 축하의 꽃다발이다.

우리는 하루백의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완비하고 생산적양양의 동음을 높이 울려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더 많은 열강 재를 보내주었다.

실회시 《영광의 땅, 강원도!》에서 받은 충격은 평생 잊을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원산 제업소 작업반장 김철준은 이렇게 말하였다.

강원도가 제업소로 새운 제업소라고 그러도 기쁘시며 흰눈같이 하얀 소금을 소중히 안아보시던 어머니장군님의 그 영상이 꿈에도 사무쳐온다는 시구절이 울릴 때 울어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다.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원수 특 정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장군님의 유복을 현지의 드림도 없이 관철해왔었다는 맹세가 더욱더 굳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군혁명나팔수들의 힘찬 음악포성에 화답하여 2년 본 소금생산계획수행의 자랑한 성과를 안고 수백리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김화군의 녀맹원들도 공연전기간 커다란 격정과 환희로 가슴불태웠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는 흥분을 안고 김화군 읍초급녀맹원회의 부위원장 송봉화는 녀맹원들에게 오늘날의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만리마태고조진군에서 앞장서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고 기대이다. 불타는 전하의 나날에 발휘된 남강마을 녀맹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인민군대원호 사업과 발전소건설지원사업을 퉁이 크게 벌려나가고자 열렬히 호소하였다.

원산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은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일컫는 단심 믿고 따르는 강원도인민들의 총성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분출시켰으며 위대한 당의 병도마라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갈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혁명적의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가을걷이전투에 역량을 총집중하여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 대중의 정신력폭발과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

### 염주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나 손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는 기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염주군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꾼들은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늘어난 낱알밭기랑, 어디까지 불리한 조건들...

이런 형편에서 벼가을걷이와 낱알밭기를 높이 세운 일꾼들처럼 대오 내뻗는다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일꾼들은 부단히 해결책을 찾아나갔다. 어디까지 문제들을 풀어야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에 앞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원시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일꾼들의 생각이 합쳐졌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양심적인 정신력이다. 그들의 심장에 비약의 불꽃을 지펴주어 다수확성과 미세하고 추후세력들의 정수리에 보다 무서운 철수를 내리자.

문제를 어떻게 세운 일꾼들은 이 사업을 방법있게 진행해나갔다. 기본은 오늘과 같은 좋은 농사작황이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농업근로자들 모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일꾼들이 전후현장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부름을 마주하였다.

올해농사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당에서는 농업전투를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으로 정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농사에 필요한 연유, 비료 등을 농사자들에게 보장해주었다. 이더 그뿐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행동에 의하여 대중의 토지정리사업이 진행될 이 땅에 배마-쌀산불꽃이 뿜어나가 우리 군은 영원히 가을을 모르고 인민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물질이 있어 없고없는 간척지벌어지 열기 해돋을 없애고 소출을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기 이닌가.

군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다. 우렁이유기농법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범장과 방도를 완벽하게 추진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민음에 의하여 우리는 논밭에 물을 따르 하지 않고도 훌륭한 작황을 마련하는 최한한 현실을 펼쳐놓게 되었다. ...

이 땅에 깃들여있는 질세워인들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들끓었다.

정녕 오늘의 중요한 가을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행동과 위대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것은 우리 당의 불멸의 행동양식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정치투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이런 결의로 대중의 가슴가슴은 새차게 끓어올랐다.

일꾼들은 또한 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문제까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사상정신적격도가 전례없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높이전 대중의 정신력이 실지 전투성과로 이어지게 하자면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꾼들은 이원리원리에서 농사기술전투와 관련된 사업을 조직정화해나갔다. 이농식탈곡기를 더 확보하여 어디까지 문제들을 해결한 사실

을 실례로 들수 있다. 벼단수가 늘어난 조건에서 낱알밭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자면 그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이런 형식의 탈곡기들을 더 마련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던가.

일꾼들은 군적으로 앞서나가는 농장들의 경험을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이농식탈곡기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이 탈곡기로 포전에서의 낱알밭기를 진행하는 경우 벼단을 탈곡장에 운반하여 낱알밭기를 할 때보다 벼단속은 최수분율원 원종수 높기때문에 높고, 이것은 벼단을 옮길 때마다 떨어지던 낱알의 희실을 막아 알곡수확률을 높이는데도 아주 좋았다. 그리고 벼단을 탈곡장까지 실어들이는데 들린 전지 않은 연유를 절약할수 있었다.

전국 이농식탈곡기를 더 확보하여 낱알밭기능력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어디까지 유리한 점이 많았다.

그 우월성을 확증한 일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내밀었다. 마산해보나 작업만다다 벼동합탈곡기에 이농식탈곡기가 1대씩더 더 있었으면 한다는 절름이 나왔다. 일꾼들은

들은 군적인 이농식탈곡기대수와 능력, 기술상대 등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모자라는것은 새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그들은 자체로 장시업을 앞세우면서 수십대의 이농식탈곡기를 만들기 위한 군농기계공업공장과 농업전투들의 투쟁을 적극 펴들어주었다. 한편 기술자들이 농장들에서 사소한 빈틈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안의 모든 트랙터포함 100% 자동차부품장치를 도입하도록 한것과, 트랙터모터들을 신속하게 결속 있도록 기술혁신전도 그리고 연도수백km의 호전도로로부수물 집적으로 진행된 연유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벼단운반속도를 높이도록 한것도 다 현실적조치를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과학적인 작전을 펼친 일꾼들의 사업가공과 배려로 생각할수 있다.

대중의 정력적행동을 비약의 무기로 끌어내고 현실적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경제조직사업을 앞장세운 일꾼들의 일본세에 의하여 군에서 가을걷이와 낱알밭기전투를 승리적으로 전격시행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철민

## 결승선을 향하여 앞으로!

◇ 농업전투가 가을걷이전투로 세차게 불붙고 있다.

당시 태워준 만민미의 고비를 역세게 뛰어넘고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노동처럼 내달리고 있는 사회주의협동농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생각은 무엇인가.

정당군 심정중 관리위원장 박연옥동무는 《전당, 전군, 전민이 가을과의 투쟁에 총동원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좋은 작황을 어떻게 바랄수 있었겠는가. 하기에 우리 심정리사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알곡증산성적으로 보답하는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이 농업전투에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한시키시어 우리의 농업근로자들 승리의 결승선에 세워주시었다.

◇ 가을철의 하루하루는 팔로써 조국을 받드는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심을 평가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투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해마다 벼를 낱기 전에 잃어버리는것을 전국적으로 계산한 바 없는 형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가슴이 아파하셨다. 한평생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를 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만노고로 얻어나 가을에 웃고 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을철농전투기간 역시 자기의 애국심을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라고 할수 있다.

올해의 모내기과 비례편리를 잘했다고 해도 가을걷이와 낱알밭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애국농정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 온 나라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마련한 오늘의 작황이 앞날 결실로 이어지는가 못 이어지는가 하는것이 바로 미지박영 농전투에 달려있다.

◇ 농업근로의 결승선을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려야 한다.

가을걷이와 낱알밭기전투실적에서 다수확성이다. 도, 시, 군, 농장일꾼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이 총동원되도록 현실적정치사업을 강도높이 벌이며 작전과 지휘를 전면에서 전투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말동안에 벼가을과 낱알밭기를 깨끗이 결속할 목표를 세우고 분초를 아껴 뛰고있는 사회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꾼들의 모범을 본받아 분발해나사야 한다.

정경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농장, 작업반, 분조, 농업근로자별 사회주의경쟁과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가을걷이와 낱알밭기에서도 분조관리제에서 포전관리제에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 애국열의를 힘있게 불어넣어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자기의 애국충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가는것이 일꾼의 의무를 감하는 위훈은 보다 빛나야 한다. 벼수확기, 트랙터포, 탈곡기 등 농기계수리정비와 중농수거수리정비를 신속히 하고 그 다음을 붙여 한달의 낱알을 신속히 하실일이 제고에 걸어들어간다.

당과 조국이 협동농을 지켜보고있고 전세계 다수확운동, 애국동원들의 불꽃의 투쟁가봉이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애국의 뜨거운 피로 가슴을 끓이는 사회주의협동농의 주인들여, 가을철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삼조의 순간순간으로 빛내이도록 결승선의 결승선에 멋있게 뛰어사자!

## 문반실적을 높일수 있는 묘안

### 연안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연안군의 그 어느 포전에 가 보아도 강냉이가을걷이가 마감단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일꾼들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만적인 토양도배제척등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런 경사의 각오안고 펼쳐나선 군안의 농업부분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가을걷이실적은 날마다 오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문의 발전은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군일꾼들이 노심분주농장에 내려갔을 때였다. 그때 그들은 농장일꾼들과 작업반장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가을걷이작기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잘 여분 이삭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강냉이가을을 지난해보다 훨씬 높추어 시작해야 하였다. 그렇다도 강냉이가을을 이삭을 높추어지 못한 그만큼 벼가을을이에도 지장을 줄수 있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강냉이가을을 절이일정계획을 지난해보다 높게 세워야 하였다. 다른 농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군일꾼들이 이 목표를 수

행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자 일꾼들모두가 로력조직을 짜고들면 강냉이가을과 대배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사람같이 말했다. 그러나 운운을 따르세우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많았다. 그렇지만도 하였다. 농장에서는 운운수단들이 제하면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운운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야만 하였다.

군일꾼일꾼들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풍광농을 부르는것은 단순한 말을 열어나며 생각하는가 하는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실정에 조이하여 운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들이 찾은 해결방도는 우선 탈곡기리용률을 높이는것이였다. 군일꾼들은 먼저 군안의 농장들의 총 부름소마리수와 탈곡기대수를 다시한번 따져보고 대량 하루 운운량을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트랙터포는 탈곡장으로부터 거리가 먼 포전, 탈곡지는 가까운 포전의 강냉이가을을 운운한 계획을 세웠다. 이예 기초하여 따져보니 모든 탈곡기 모두 운운하는 량이 트랙터포를 넘어선다는 판과 맞먹었다. 결국 탈곡기의 리용률만 높이면 트랙터포의 가용량을 2배로 높이는것으로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본사기자 전명일

든 농장들에서 이것을 적극 받아들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군일꾼들은 초봄농기수준비를 잘하는것을 운운의 속도높이는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끌어내고 내밀었다.

어느날 오희협동농장에 내려간 일꾼들은 농장에서 지난해 문반실적을 높인 비결을 찾아보는 과정에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서로 다른 크기의 구멍을 많이 만들며 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예 농장에서는 분조별, 농장원별로 구멍을 만들어 이삭을 따는속도를 높여 트랙터포와 탈곡기리용률을 높여주었다. 무지불 만연어늘고 실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으며 무리우는 시간도 빨랐다.

군일꾼들은 구멍을 많이 만들어 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우월성을 농장일꾼들에게 절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이 로력조직과 자체보장사업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였다. 성과는 컸다.

군안의 농장들에서 구멍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정경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군일꾼들이 운반실적을 높일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고 이를 내밀었다. 마산해보나 작업만다다 벼동합탈곡기에 이농식탈곡기가 1대씩더 더 있었으면 한다는 절름이 나왔다. 일꾼들은

## 금야군 인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금야군 인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강냉이가을을 불과 4일동안에 외따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할 때 하루에 두배의 실적을 올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로력과 기계수단 이 분포에서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강냉이가을과 운반수단에 실고를 준비하는데 드는 로력이 얼마나 필요할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조건에서 낱알밭기와 노심분주제척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배농원들의 나이와 능력, 성격까지 따져보며 민중이 세운 작업조직에는 법시 성과의 담보가 내뉘어있었다.

모든 농장원들이 마음과 마음을 맞춰가며 자기의 능력을 다할수 있게, 분조관리제와 우월성실 성과를 높이 이 발휘하도록 연유를 높이고 민중이 세운 작업조직은 법시 성과의 담보가 내뉘어있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사업을 짜고드는가에 그 성과가 달라지며 제고해나가는것을 현실로 증명해나갔었다.

작업반에서는 5분조의 경합을 일반화하여 모든 분조들에서 자기 분조의 구체적인 성과와 운운량, 로력수정성을 다시금 따져보고 작업조직을 변질하게 짜고들도록 하였다.

이것이 온 읍을 넘어 종전의 로력과 운반수단을 가지고도 지난해보다 2배의 실적을 낼수 있었다.

본사기자 박영진

금야군 인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강냉이가을을 불과 4일동안에 외따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할 때 하루에 두배의 실적을 올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로력과 기계수단 이 분포에서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강냉이가을과 운반수단에 실고를 준비하는데 드는 로력이 얼마나 필요할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조건에서 낱알밭기와 노심분주제척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배농원들의 나이와 능력, 성격까지 따져보며 민중이 세운 작업조직에는 법시 성과의 담보가 내뉘어있었다.

모든 농장원들이 마음과 마음을 맞춰가며 자기의 능력을 다할수 있게, 분조관리제와 우월성실 성과를 높이 이 발휘하도록 연유를 높이고 민중이 세운 작업조직은 법시 성과의 담보가 내뉘어있었다.

이것이 온 읍을 넘어 종전의 로력과 운반수단을 가지고도 지난해보다 2배의 실적을 낼수 있었다.

본사기자 박영진

## 포전별적기선정을 바로하여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에서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 이것은 강냉이가을을 절이실적으로 결속한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농장에서는 낱알밭기를 막으면서도 가을걷이를 적기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달려있다.》

강냉이가을을 절이실적으로 결속한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세에서 분반을 짠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농작업을 눈짐작, 손짐작으로가 아니라 과학적리치를 따르자고 한데 과학의 빛으로 자기 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된것이다. 가을걷이작기를 과학적으로 정함으로써 낱알밭기를 과학적으로 대조적시했다.

리량위원장 김원진, 관리위원장 김경영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꾼들이 가을걷이작기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지난해 시공요이 있었기때문이었다.

당시 일꾼 작업반들의 가을걷이 이후 결과를 분석해보면 초기

여 여우는 상재가 달랐다. 이런 상태에서 일꾼들이 가을을 절이실기를 정하면 그 후가 매우 골수 있었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서 골수과 포전선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정도에 맞게 가을걷이작기 선정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일꾼들은 또한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농장원들은 뜻있는 올해에 기여하여 풍년로적리치를 높여 쌀을 열의하고 강냉이를 절이실기를 따랐다.

가을걷이작기를 바로 정하는 데 알곡증산의 또 하나의 예비 가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해나간 결과 좋은 결실을 안아올수 있었다.

본사기자 윤용훈

## 능률적인 도로바닥선지는기계 제작완성, 칠감 새로 개발

평양시에서 작업능률이 높고 실용성있는 도로바닥선지는기계를 제작완성하여 적극 리용하고있는 속에 함흥협동농기계공장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외장제연구소에서도 도로바닥선지는기계와 칠감을 새로 만들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오늘의 자력생강대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할 열의드높이 이만단위 일꾼들은 도로바닥선지는기계와 칠감을 자체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함흥협동농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리치와 열정을 발휘해 가공기구를 장인제척하고 용역장르, 분부장치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과 부품들을 설계의 요구대로 가공조립하였다.

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기술적리치들이 원만히 보장된 도로바닥선지는기계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외장제연구소의 연구사들도 두뇌적, 기술적으로 수비 식의 도로바닥선지검역구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이들은 고집이 센 사색과 노력으로 마침내 건조시간이 매우 빠르게 부속제기가 높고 발달효과까지 나타내는 2종의 새로운 도로바닥선지검역기를 만들어냈다.

함흥협동농기계공장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외장제연구소의 로동자, 기술사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된 도로바닥선지검역기와 칠감은 사회주의분명국의 체모에 맞게 도로의 면모를 인식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분석시키는데는 그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좋은 방법론을 찾아야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기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닌 안악군 리성협동농장 청년분조 당세포사업은 높고도 우려투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증하게 된다.

환영모임과 웅변모임

청년분조에서는 해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들은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당세포에서는 그들에 대한 환영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충청청년분조운동반 마흔둘을 갖는 올해에 친선심동무가 분조에 만연해왔을 때에도 그런 환영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는데 얼마나 친선감을 받았던지 분조원들에서 다진 그의 절의는 말 그대로 불처럼 뜨거웠다. 환영모임은 청년분조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하여올 때 가슴이 떠질듯 느꼈다. 그 절정이 되세졌기때문이다.

이처럼 환영모임은 단원자들에게는 농업전선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안겨주고 분조원들모두에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면 그때 그 열정을 안고 살도록 하게 하는 좋은 계기되고있다.

분조에서 자주 진행되는 웅변모임 역시 청년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또 하나의 위력

##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고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청년분조 당세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상교양사업을 전진하는 시대의 승배에 맞추어 청년들의 실감을 높여주어 그들을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 당세포에서 청년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적용한 방법론을 통해 몇가지 주목되는것들을 보기도 하자.

환영모임과 웅변모임

청년분조에서는 해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들은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당세포에서는 그들에 대한 환영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충청청년분조운동반 마흔둘을 갖는 올해에 친선심동무가 분조에 만연해왔을 때에도 그런 환영하는 모임을 조직하였는데 얼마나 친선감을 받았던지 분조원들에서 다진 그의 절의는 말 그대로 불처럼 뜨거웠다. 환영모임은 청년분조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하여올 때 가슴이 떠질듯 느꼈다. 그 절정이 되세졌기때문이다.

이처럼 환영모임은 단원자들에게는 농업전선의 한 성원이 된 긍지를 안겨주고 분조원들모두에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면 그때 그 열정을 안고 살도록 하게 하는 좋은 계기되고있다.

분조에서 자주 진행되는 웅변모임 역시 청년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또 하나의 위력

이 열어있었다》를 부르게 하였다. 단원들은 강령성동무에서 김경학동무도 내었다. 그들의 소스가 얼마나 절실하였던지 새로 불어오는 분조원들이 저지마다 자리를 박고 일어나서 자기도 전화를 나날 영웅의 나기와 같다고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감을 맡아 해세겠다고 결의해나갔다.

그들의 절의는 그대로 대중운동의목표에 반영되었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가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 그들은 높이 세운 불메기전투제척을 앞당겨 수행하고 청년분조와 청년분조합숙진동을 보수가 아니라 대담하게 힘고 새로 전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후에도 분조에서는 웅변모임을 자주 조직하였다. 실효는 대단히 컸다. 분조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옥육력, 동기구경고, 총지치리장, 총사, 남대은실 등을 자체의 힘으로 번듯하게 지켰으며 동시에 절절한 기쁨을 표현해 많이 내며 위대한 알곡소출을 높였다.

그러나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환영모임, 웅변모임은 얼마나 위대한 정치사업방법인가.

가맹반자와 생일일람표

당세포원들이 가맹한 날이 오면 목록 그들을 만나고 하는게 특이하다. 열매 보지도 않거니와 그대리 이 일람표를 오순현동무는 때없이 펼쳐보고 정치사

나 지난 한해 생활에서 나타난 우점함을 총회해주고 앞으로 동맹조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준다. 어떤 때에는 분조장 리량동무와 초급단계에서 김명복동무에게 이 사업이 분조에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청년분조원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한 성원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에서 불파를 일으키려는 청년분조원들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게 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

영예사건계시판과 상식소개판

당세포에서는 승객성이 강하고 세기에 민감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력을 통한 교양사업도 잘하고있다. 그 일단을 청년분조와 합숙으로 보았다. 하기에 청년분조에서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산작업의 계획화중을 펼친 높이 지난해 농사정보량 9t이상의 소출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화에서도 큰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로 되었다.

나날이 높아지는 경쟁열풍속에 분조는 3분조청년분조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열매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생취하게 되었다.

그 기쁨은 바로 당세포가 청년들이 갖는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고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청년분조원들이 리용하는 시 사색에는 생일일람표가 있다. 이것 역시 당세포원장들의 방법에 의하여 생겨났건다. 생일일람표는 청년분조원들에게 영예의 성 넘치는 풍성한 시 사색을 마련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생일일람표라고하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 온 분조에 서로 위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되었다고 한다.

당세포원장 오순현동무가 참신하게 진행되는 이 사업을 제기를 잘 리용했으므로 하여 언제나 실패가 대면했다.

관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운영은 청년분조원들의 정경의욕과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려는 열의를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하기에 청년분조에서는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산작업의 계획화중을 펼친 높이 지난해 농사정보량 9t이상의 소출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화에서도 큰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로 되었다.

나날이 높아지는 경쟁열풍속에 분조는 3분조청년분조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열매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생취하게 되었다.

그 기쁨은 바로 당세포가 청년들이 갖는 단위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주고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자력생강의 혁명정신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평양전자의표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